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功德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깎고 있습니다.
 인도불교진흥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찬불가와 법문에 의존하는 정형화된 법회는 싫다’
 법회 문화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소리 없이 몸으로 노래하고 법문하는 수화법회, 늙고 쇠약한 어르신들을 진료해주는 무료진료 법회와 같은 특색화된 법회가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93년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열기 시작한 서울 광림사는 10년째 수화법회로 장애인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등 천태종 주요 사찰이 가세한다.

천태종 수화법문으로 장애인포교 앞장
 화계사 국제선원 영어강좌법회 큰 호응
 수원포교당 영화 등 문화법회 확대 계획

즐겁고 유익한 법회 ‘뜬다’

천태종복지재단은 한국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로부터 전문 수화통역사를 협조 받아 9월 7일부터 종단 주일사찰의 정기법회에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문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다. 수화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포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진일보한 포교방식으로 평가된다. 또 이들 사찰 법회에서는 상담, 진료, 처방, 투약 등의 무료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의 법회 동참 신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큰 호응이 예상된다. 무료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태종복지재단은 최근 의사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천태의료봉사단을 마련했다.

국제화 시대에 필수로 요구되는 영어를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찰

도 등장했다. 서울 화계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영어강좌법회를 연다. 이 법회는 국제선원에 있는 스님들이 직접 강의해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포교당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화보기, 연극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법회시간에 적용해 재미있는 법회로 만들

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우란분절, 성도절 등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법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들은 찬불가와 법문, 기도로 구성되는 정형화된 법회형식을 탈피,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포교방식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계 참여하지 않으면 북한산도로 공론조사 안해”

최진교 예방, 법장 총무원장에 밝혀

최종찬 건설교통부장이 북한산 관동도로 공론조사와 관련해 불교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 건설교통장은 8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장 스님이 “공론조사 실시는 약속이행과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한 회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등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

다”며 조계종이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불교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공론조사를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28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부고속철도, 북한산 관동도로,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달 내에 모두 결말이 날 것”이라고 말

했다. 고건 국무총리도 27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부고속철도와 북한산관동도로 노선 재검토 문제에 대해 “9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북한산 문제가 9월까지 결론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구상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사회갈등조정 태스크포스팀에서 결론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산 문제는 사회갈등조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수 국무총리실 사회수석 조정관은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교계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박물관 기탁문화재 환수
 조계종, 구체계획 곧 발표

조계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불교전문박물관을 건립하고 종단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국공립박물관에 기탁 또는 위탁돼 있는 종단 소속 사찰의 성보문화재 환수를 추진한다. 조계종은 2003년 1월 현재 총 27개 사찰 2,121여점(국보 4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6점 포함)의 불교문화재가 국공립박물관 등 다른 기관에 대여돼 있다고 최근 밝히고, 다음달 중순 경 환수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오른쪽 두번째), 중앙총회의장 지하스님, 이명박 서울시장, 오지철 문맹부 차관이 상량판을 설치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

오는 11월 1차 공사 마무리... 내년 6월 완공

한국불교의 새 장을 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이 3천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8월 29일 기념관 신축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원로의원 천운·지혜 스님, 중앙총회의장 지하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법타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40여 중앙총회의원, 이명박 서울시장, 오지철 문화관광부장관, 조운제 청와대불자회장, 현대이산 김윤규 사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2년 4월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연면적 5,085평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로 올 11월 1차 공사가 마무리된다. 완공은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장 건립이 끝나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6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8월 22-23일 양일간 울릉도에서는 회당문화축제가 열렸다. 주최는 울릉군이 아닌 진각종이었다. 전야제가 진행된 울릉군 도동항 야외무대에는 1천5백여명 이상이 운집할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야말로 대성황이었다. 최근 2-3년간 모방송사가 울릉도에서 마련한 계절라콘서트 이후 최대의 인원이 모인 축제였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23일 타악연주그룹 ‘야단법석’과 장사익씨의 공연은 군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육지에서 배로 3시간 정도 거리

절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지역이다. 또 요즘은 가까운 일본의 신종교가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서서히 밀려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이 회

교 신자들도 상당히 관람했을 정도로 종교간 화합에도 기여했다. 이제는 명실공히 울릉도의 최대 문화 축제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이웃종교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가 된 것이다. 문화의 사각지대란 틈새를 이용해 1년에 2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진각종의 문화포교 전략은 교계에 귀감이 될 만하다. 행사장을 즐겁게 빠져 나가는 군민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제대로 된 포교의 힘을 느꼈다.
 김주일(취재2부 기자)

울릉도와 회당축제

에 있는 울릉도는 문화의 사각지대다. 영화관도 없고 문화행사도 고작하여 1년에 2-3번 열릴 정도다. 그런데다 개신교회가 33개인데 비해 사찰 수는 6개 밖에 안돼

당종조의 탄생지인 울릉도에 3년전부터 문화축제를 열며 문화포교에 발 벗고 나선 일은 등을 두드려 줄만한 일이다. 실제로 객석에는 수녀님과 개신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 드리는 한편 후불행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훈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제’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뜻깊은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두번째 49재 안내	제1재 8월 17일	제2재 8월 24일	제3재 8월 31일
	제4재 9월 7일	제5재 9월 14일	제6재 9월 21일
	두번째 49재 - 9월 28일 원명사 묘여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천도제사(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야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야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 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